



SK Telecom  
사장 서 정 옥

신기업이나 학계등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정보화 사회」 또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 10주년을 SK Telecom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더 큰 공헌 기대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맞아 체제와 이념,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분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사운을 걸고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의 소개, 업계동향, 선진외국의 기술소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간하는 「정보화사회」는 정보통신기업이나 학계등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정보화 사회」 또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 10주년을 SK Telecom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주)신세기통신 대표이사  
사장 정 태 기

또한 정보통신산업계의 중심단체로서 업계의 애로사항 타개 및 경쟁력 강화, 통신사업자간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보급 확산 등에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건전한 정책건의, 비판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 및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1987년 창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발전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위상 및 미래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와 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환경 개선, 국제교류협력,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 산업 기초통계 작성 등의 지원활동과 함께 건전한 정책 건의 및 비판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통신정책 수립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정보사회를 위하여 계속 정진을



연세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 박 한 규

위하여 계속 정진할 것을 기대하며 그간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통신업체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21세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월간지 '정보화사회'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를 위한 정보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협회산하에 한국 EDI 협의회, 통신사업자 협의회, 멀티미디어 협의회 등 여러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정보통신 사업의 환경조성과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촉진방안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본 JMF와 협력,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 개최, 한·일 멀티미디어 세미나 등 해외 정보교류와 국제간 상호협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키 위한 사업을 확대 보완하여 정보통신 사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21세기 정보사회를



농심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전 상 호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선도한 10년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보통신분야에 씨뿌리고 싹을 틔우고 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의 첨병으로서 그간 정보통신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각종 업무, 홍보는 물론 정부와 업계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해는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한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며, 정부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 협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3년 남짓 남았습니다. 21세기에는 국내 정보산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서 선진화를 꾀하고 환태평양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리 정보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협회의 회원사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중간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때로는 정보통신산업 전체를 이끄는 대표자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세계적인 신망을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산원  
원장 이 철 수

## 새로운 10년을 향해 더 힘찬 발걸음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지 못했던 시기에 출범하여 오늘의 정보통신산업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온 협회에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정보화 되어가면 갈수록 정보통신은 사회의 간접자본으로서 역할이 커져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야로서의 영역을 개발하고 넓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지식산업이며 첨단기술집약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과 겨루어 볼만한 산업분야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세계로의 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지난 10년간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에 중심역할을 해온 협회에게 향후 10

년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큼니다. 협회의 발전이 곧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될것이기때문에 지난날에 안주하여 머물기보다 새로운 10년을 향해 더 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콤텍시스템  
사장 남 석 우

## 네트워크시대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전산망사업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전산망 사업의 보급확장과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협회는 정보통신업계의 공동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에 참여, 조사통계에 의한 산업기초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협회는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국제환경에 따라 정보화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업계의 대표기구로서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직시,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